

4억 '스트라이크'

KIA 양현종 계약... 233% 팀 투수 최다 인상



원칙 깬 KIA, 에이스 양현종의 어깨가 무겁다. KIA가 11일 2015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47명과 모두 재계약을 끝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에이스 양현종의 연봉은 1억2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수직상승했다.

233.3%의 인상률과 함께 2억8000만원이 한 번에 뛰어오르면서 양현종은 팀 역대 최고 인상 금액(중전 2010년 최희섭 2억)과 투수 부문 팀 역대 최고 인상률(중전 2004년 신용운 200%) 기록을 갈아치웠다.

원칙주의를 강조해왔던 KIA 입장에서 과격적인 대우다. 기존 KIA의 협상 원칙은 철저한 연봉고과였다. '프리미엄'은 없다는 것이 구단의 공식 입장이었다.

양현종에 앞서 부동의 에이스로 역할을 해왔던 윤석민(볼티모어)도 사실상 4관왕·포스팅·FA 프리미엄을 적용받지 못했다. 통근 외부 영입과 달리 팀 내 예비 FA에 대해서도 '프리미엄은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마찰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KIA는 양현종의 실제 연봉 고가의 배에 가까운 '포스팅 프리미엄'을 적용하면서 원칙을 깬다. 팀의 대표 선수이자 에이스에게 포스팅 무산에 대한 보상을 해준 것이다. 점점산중언 올 시즌을 부탁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비슷한 입장에 처한 SK 김광현이라는 상대 잭대도 KIA를 고민케 했다.

KIA는 윤석민 관리 실패를 교훈 삼아 '기 살리기'와 '미래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양현종을 대우해줬다. 최종 협상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어려운 팀 상황에서도 포스팅 신청을 허락했고, 선수단 내부에서도 과격적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많은 연봉을 안겨줬다. 그만큼 양현종의 어깨는 무겁다.

성공하지 못했던 포스팅을 실력으로 만회하며 잠시 미뤄둔 해외 진출 기회를 노려야 하고, 명실상부한 에이스로서 대우를 받은 만큼 실력으로 답을 해야 한다.

KIA의 부담도 남아있다. 기존에 고수해오던 원칙주의에서 벗어나면서 앞으로의 연봉 협상 기준과 대책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올 시즌 연봉 협상이 마무리 되기는 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프리미엄이 있다'와 '프리미엄은 없다'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자 선수들 사이에서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다르다. 구단의 협상 기준이 뭘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우여곡절, 고민 끝에 KIA의 2015시즌 연봉은 모두 확정됐다. 2년 연속 8위라는 참담한 성적 속에서도 연봉 한파는 비껴간 모양새다. 리그 최하위급 연봉팀 KIA가 변화의 바람 속에 확실하게 몸집을 불려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양현종·안치홍에 이어 팀 내 연봉고과 3위를 기록한 외야수 나지완은 2억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인상된 2억5000만원(인상률 13.6%)에 계약했고, 외야수 신중길은 1억원에서 2000만원 오른 1억2000만원(인상률 20%)에 도장을 찍었다. 투수 임준혁은 4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6.3%로 인상됐다.

투수 김병현은 2억원으로 연봉이 동결됐고, 외야수 김원섭은 2억5000만원에서 40% 삭감된 1억5000만원에 계약을 마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골잔치를 부탁해”



10일 호주 캔버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AFC 호주 아시안컵 A조 조별리그 1차전 한국 대 오만 경기. 조영철이 결승골을 성공시킨 뒤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오만에 1-0 승리...호주에 골득실 뒤져 A조 2위

토너먼트 순항 위해선 내일 쿠웨이트전 다득점 해야

2015 호주 아시안컵에서 첫만에 승리한 한국 축구 대표팀이 기세를 몰아 조 1위를 향해 돌진한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3일 오후 4시(한국시간) 호주 캔버라 스타디움에서 쿠웨이트와 대회 A조 2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지난 10일 오만의 1차전에서 1-0으로 이겨 호주와 같은 승점 3을 쌓았다. 호주에 패배한 쿠웨이트와 오만은 똑같이 1패, 승점 0으로 뒤를 따르고 있다.

한국이 조 1위로 8강에 진출하기 위해선 쿠웨이트와의 2차전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골을 뽑아야 한다. 호주가 쿠웨이트를 4-1로 완파해 골득실에서 +3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안컵에서는 승점이 같을 때 골득실이 아닌 맞대결에서 이긴 쪽에 우위를 주는 승자승 원칙을 적용한다.

현재 상황을 볼 때 한국과 호주는 각각 쿠웨이트, 오만을 꺾어 2승을 거두고 17일 A조 3차전 맞대결로 우열을 가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호주가 비기면 승자승을 따질 수 없어 차순위 동점배제 원칙인 전체 골득실이 적용된다. 따라서 조 1위에 도전하기 위해 한국은 일단 쿠웨이트로부터 많은 골을 뽑아야 한다.

아직 구도가 확실하지 않지만 한국은 토너먼트 순항을 위해 조 1위로 8강에 진출하는 게 유리하다. 이번 대회에서 A조 1위는 B조 2위, A조 2위는 B조 1위와 8강에서 대결하는데 B조 1위에 걸려온 상대가 들어올 수 있다.

B조의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북한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이 조 1위 후보로 까다롭고 중국, 북한, 사우디는 한

수 아래다. 한국은 2011년 카타르 대회까지 5회 연속으로 8강에서 이란을 만나 대회를 망친 나쁜 기억이 있다. 패배를 탈락한 때도 있었고 이기더라도 다음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총력전을 펼쳐 막상 우승 문턱인 4강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

골잡이들의 감각을 조율하고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쿠웨이트전 골 잔치는 필요하다.

쿠웨이트는 작년 11월 걸프컵에서 오만에 0-5로 대패를 당한 적이 있는 A조의 최약체다. 한국은 조영철(카타르SC), 이근호(엘 자이시), 손흥민(레버쿠젠), 구자철(마인츠), 남태희(레키아) 등 파괴력 있는 공격수들이 있다. 첫 경기에서 승점 3을 뽑아 출가분해된 만큼 쿠웨이트를 상대로 더 자신 있는 공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 미드필더 듀오 기성용(스완지시티), 박주호(마인츠)도 공격적인 화력을 배가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기성용은 피로와 시차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었으나 후반에서 킬러 패스를 자주 뿌려 빅리거로서 정상급 감각을 보여줬다. /연합뉴스

“밀집수비팬 침착하게 허점 노려라”

슈틸리케 감독 쿠웨이트전 키워드

울리 슈틸리케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쿠웨이트전의 키워드로 밀집수비·침착·부담 해소를 제시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11일 호주 캔버라의 매켈러 파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만전에서 봤듯이 쿠웨이트와의 경기 때도 명심할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꺼낸 주제가 밀집수비였다. 슈틸리케 감독은 “약체들과 대결할 때 우리 공격수들이 볼을 잡으면 상대 8~9명이 수비진에 내려온다”며 “이럴 때 공격수들이 잘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잘 해낼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 난국의 해결책으로 침착함을 제시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밀집수비에 대응할 때 침착하게 기다리며 상대가 허점을 보일 때를 노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침착함의 끝이 자칫 부담으로 연결돼 조급함을 느끼는 공황으로 발전하는 사태는 절대 불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전반 15분, 20분까지 선취골을 터뜨리지 못했다고 선수가 미리 부담을 느끼면 안 된다”며 “그러면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계획에도 없는

통볼을 차면서 경기를 망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승후보로서 맞이하게 되는 밀집수비 때 골이 일찍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지지 말고 부담을 해소하는 게 가장 올바른 자세”라고 덧붙였다.

슈틸리케 감독은 지난 9일 대회 개막전에서 쿠웨이트에 초반에 선취골을 내주고도 차근차근 내 골을 뽑아낸 호주의 사례를 밀집수비를 공략하는 모범으로 거론했다.

한국은 13일 오후 4시(한국시간) 캔버라 스타디움에서 쿠웨이트와 A조 2차전을 치른다.

쿠웨이트는 기본적으로 전열을 끌어내리고 밀집수비를 펼치지만 탈락 위기에 몰린 터라 한국전에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편, 한국은 지난 10일 치러진 오만(세계랭킹 93위)과의 대회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전반 46분 터진 조영철의 결승골을 끝까지 지키면서 1-0으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한국(승점 3·골득실+1)은 전날 쿠웨이트(1패)를 4-1로 격파한 호주(승점 3·골득실+3)와 함께 나란히 1승을 챙기면서 뜨거운 선두 경쟁에 나섰다. /연합뉴스

전설은 계속된다

김병지, 전남과 재계약...최고령 출전기록 이어



‘살아있는 전설’ 김병지(45)의 역사는 계속된다.

전남 드래곤즈가 최근 자유계약(FA) 신분인 K리그 최고령 김병지와 재계약을 맺었다. 김병지는 지난해 정규리그 전경기(38경기)에 출전해 전남의 골문을 든든히 지켰다.

그가 경기에 나설 때마다 K리그 최다 경기 출전 기록(679경기)과 최고령 출전 기록(만 44세 7개월 14일)이 새로 쓰여졌다.

김병지는 이번 재계약과 함께 올 시즌 전남에서 자신의 역사를 이어가게 됐다.

전남은 ‘캡틴’ 방대종과도 재계약을 끝냈다. 전남 유소년팀 출신인 수비수 방대종은 지난 시즌까지 137경기에 출전해 6골2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시즌 주장 완장을 찬 그는 신·구 선수들의 소통을 이끌고, 코칭스태프와 가교 역할을 하는 등 주장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